

“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모범 크리스천이요 시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고 가르친 그가 동족을 위해서는 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한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길로 치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을 가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과 차원이 다른 애국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애국심은 가질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이가 민족 구원, 나라 사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애국하는 길임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애국심이란 국가라는 어떤 실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는 21세기에 사는 이들에겐 공동이익 집단이다. 혈연, 지연, 이념을 말하나 나라 사랑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천만을 누가 전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따라서 애국 또는 애국심은 사랑에 밑받침이 된 것이다. 동족으로부터 천대, 멸시, 핍박, 오해를 많이 받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40명이 그를 협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동족의 위협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위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가, 저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로 동족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었다. 모세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 이 같은 기도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애끓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고통받는 복넙땅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번민해 본 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친족, 이웃, 장애인, 타문화권 노동자, 노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학대 받는 복한외 동족 위해 고통을 느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환자를 사랑하면 그의 병이 내게로 옮겨 올 수 있고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같은 운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그곳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따라갔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희생 없는 애국, 애국은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anathema) 즉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다. 바울의 애국심은 소망에 근거된 것이다. 사도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구약에서 253회 반복 강조되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는 소망을 바울은 확실히 가졌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시절에 윤치오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지었고 남궁억은 3.1운동으로 전국이 피 냄새로 악취를 풍길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비단실로 짜놓은 반도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유관순은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남강 이승훈은 재판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 이들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자유, 정의,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애국자다. 애국심은 위태로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한 사도처럼 하나님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809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네(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라, 사지, 에베(인도), 스프로트(보이), 필리몬, 프란시토, 수레시, 수버스,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디소프, 린통, 수만준(벵골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다카(스리키르)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서울교회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발 ”

■ 고전 3:5-9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영적 돌봄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들 혹은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움을 입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5절에서는 ‘디아코노이’, 사역자들 혹은 일꾼들로 표현하였고 9절에서는 ‘데오 게오르기온’ 즉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1에서는 ‘스네르곤테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 묘사하였고,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볼로가 누구이며 바울이 누구인가?고 묻지 않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들이 가진 지위나 직위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에게서 교구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격이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는 일을 하든지 물을 주는 일을 하든지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할 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교회주의가 난무하다 보니 특정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병폐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에서 목사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목회자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도 없거니와 감히 하려고 나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자하여 성도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닙니다.

2. 회중은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9절).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용하신 일꾼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회는 마치 목사를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상 교회의 청빙 과정을 거쳐 담임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의 지침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그의 명령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할 책무들을 지명해 주셨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 목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지도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지탄받아야 할 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사도 바울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역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맺는 말

참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땅이 할 일은 흡수하는 것과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도무지 극상품 열매는 찾아보기 어렵고 들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이 옥토가 되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옥토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 즉 믿음으로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의 발이나 돌밭 발이나 가시떨기 밭은 말씀으로 인한 핏박이나 세상 염려나 재물의 염려로 도무지 결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성찰해 보십시오. 이처럼 성도로서 할 일은 믿음으로 잘 흡수하여 주인이 원하는 극상품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II 오전11시20분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6: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8(시 3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10(24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3:9-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하나님의 집과 터”...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600(24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 닻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닻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1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6:1 인 도 자
 찬 송 331(375)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4:19-24 인 도 자
 설 교 “길갈” 인터넷 영상
 찬 송 413(470)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337명	278명	1,615명	1,83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8/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2일	헌 금	41,708,080	
	교회학교운영비		500,000
	선 교 비		60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341,000
	통 신 비		92,150
	수도광열비		424,620
	차량유지비		625,300
	소모품비		380,750
	환경유지비		80,000
	수선유지비		27,000
	식당운영비		200,530
	합 계	41,708,080	3,481,35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